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Family system types,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

명지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이천숙
교수 이희자

Dept. of Home Economics, Myung Ji Univ.

Master : Chun Sook Lee

Professor : Hee Ja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mily system types,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

The subjects were 248 male and 241 female students selected from 3 universities' freshmen to seniors.

The instruments of measurement were the FACES III, Self-Differentiation Scale and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Scale.

SAS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data were verified by frequency,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 according to family system types. Adolescents of balanced families had the most psychological well-being.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according to family system types. Adolescents of balanced families had the most self-differentiation.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

according to self-differentiation. The more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is high, the mor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s high.

4. The self-differenti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influ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다. 또한 가족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므로 인간발달의 근원적 집단이기도 하다(유영주, 1986). 가족이 개인의 성격이나 정서, 정체감, 행동양식 등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근거는 Freud 이후 Sullivan과 Erikson 및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어오고 있다.

가족기능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최근의 모델로서 Olson, Sprenkle, 그리고 Russell(1979)이 만든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에 의하면, 한 가족이 응집력과 적응력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이룰 때가, 그렇지 못한 때보다 가족체계의 기능이 더 효과적이며 가족 구성원들도 최적으로 발달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균형잡힌 가족체계는 가족내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서 건강하고, 잘 기능하는데 비하여 극단적인 가족체계는 가족문제를 잘 일으킬 수 있고 역기능적이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Bowen(1982)은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족의 역동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지각과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며(Bowen, 1976) 융통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 그러나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 삶을 산다. 따라서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은 모두 자아가 분화되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Hall에 의하면 청년기를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고 하였으며, Friedenberg는 개인의 정체는 청년이 부모 및 다른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 반면, Erikson은 청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만도 아니고 동조와 복종의 시기만도 아니고 다만 정체 확립과 정체혼미사이에서 싸우는 시기라고 하였다(이춘재 외, 1988).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자녀간의 불일치가 심하여 생활주기 중 가족원간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고 가족의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때이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복합순환모델과 가족의 기능, 복합순환모델과 각각의 가족에 속한 청소년의 비행 등과 관련된 연구(Garbarine, 1987; Lavee, 1985)가 있고, 한국의 경우 임용우(1984)나 전귀연(1994)의 복합순환모델에 따른 가족유형과 그 가족의 청소년의 부적응과 적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신영규(1994)의 가족체계유형과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아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는 정도이며,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총체적으로 연결시켜 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동조직의 재구성, 자아 발달, 신체적 성숙, 갈등의 형성과 해소의 측면에서 설명한 Blos(1962)의 청소년기 발달 6단계 중 5단계인 청소년후기자녀(특히 대학생)를 대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청소년후기자녀를 대상으로 Olson 등이 가족체계 유형분류를 위해 개발한

Circumplex 모델과 Bowen의 이론에 입각하여 가족 체계유형별로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체계유형별로 자아분화수준을 밝히고,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청소년 후기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을 도우며,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도록 돕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 후기 자녀의 자아분화에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자아분화에 따라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4)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체계유형: Olson의 복합순환 모델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 단위 또는 사회체계로 보는 입장은 Ludwig Von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에서 시작되었다.

Olson(1979, 1983)등은 군집분석기법을 써서 가족 기능을 묘사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양방향성의 두개의 요인-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력과 단방향성의 세번째 요인-가족의사소통-을 결정했다. 이중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의 차원은 가족과정 또는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여겨 상호조화를 이루는 유형론적 모델 즉 Circumplex Model을 발전시켰다. 의사소통은 모델에 직접 도식

화되지 않고 다만 촉매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Olson등이 결정한 두개의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들 중의 첫번째는 관계요인으로 가족응집력이라 한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된다(Olson등, 1983).

Olson등이 규정한 두번째 중요한 양방향성 요인은 변화와 유연성 요인으로 가족적응력이라 부른다. 이것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Olson등, 1983) 권력, 협상양식, 관계에 있어서의 규칙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건전하지 못하므로 또한 양방향성이라 묘사된다.

Olson등(1979, 1983)은 가족체계유형을 결정하는데 세가지 요인 중 응집력과 적응력을 사용했다. 직교적이고 양방향성의 두 요인을 기초로 하여 16개 유형의 가족체계를 분류하고 최근에 이것을 3차원으로 도식화했다(Olson, 1993).

그러나 가족체계 연구시에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16개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논하기 어려우므로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의 3종류의 가족체계로 나누어 체계유형을 연구하거나(Olson, 1985, Lavee & Olson, 1991), FACES III의 점수에 따라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가족의 4종류로 가족체계를 나누어 연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Olson등, 1992).

Circumplex Model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기능간의 관계를 양방향성, 즉 곡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응집력의 축과 적응력의 축에서 각각 중간부분이 건전한 가족임에 반하여 양극으로 갈수록 건전하지 못한 기능을 지닌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체계유형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점에서 역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Olson등,

1983). 즉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상태, 또는 가족구성원의 기대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므로 그 변화를 조정하고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자체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문화권에 따라 가족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록 체계의 각 차원(특히 응집력)에서 극단적인 수준에 머무는 가족일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족체계를 인정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Ol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 가족체계유형별 중요성을 포함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2. Bowen의 자아분화이론

자아분화는 Bowen(1982)에게 있어서 개인의 성장의 목표이자 치료의 목표인데, 간단히 말해서 미분화된 가족자아 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신영규, 1994). 완벽하게 자아분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으로 Bowen(1982)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의 자아분화수준은 0에서 100까지의 수적인 연속선의 한 지점에 있다고 보았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자아융합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다.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을 못하며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 불안해 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간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적지향적 삶을 산다.

3. 심리적 안녕

학자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개념인 심리적 안녕은 도의시한채 인간의 불행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주로 연구해왔다(Diener, 1984). 그후 심리적 안녕에 대한 연구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 객관적 지표에 대한 대안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심리적 안녕은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는, 삶의 질에 대한 방법론적·조작적 정의로서 객관적 조건 및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입장과, 둘째로는, 정서적·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여 정의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다.

Bryant와 Verloff(1982)는 심리적 안녕의 주요요인으로서 행복감, 긴장도와 개인적 유능감을 들고, 이들 세 차원은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이에 영향을 주는 생활영역이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편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을 심리적 안녕과 동의어로 사용하여 행복감,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를 포함시켰다. 또한 Bradburn은 심리적 안녕을 정서적으로만 이해하였다.

Ross, Mirowsky와 Goldsteen(1990)은 심리적 안녕이란 만족감이나 자아통제감 및 유능감과 다른 구별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생활영역에서의 성취로 인한 만족감이 심리적 안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좀더 제한적으로 심리적 안녕에 대한 정의를 주장하였다.

종합해보면, 정서적·주관적 평가로서의 심리적 안녕도 생활에 대한 만족과 그에 따른 정서적 상태를 포괄하여 보는지, 순수하게 만족과 구별되는 긍정적 정서의 존재를 보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을 '삶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라고 정의하고, 두가지 하위

차원으로 긍정적 정서측면과 생활만족도 측면을 포함시켜 연구하기로 한다.

4. 관련 선행연구고찰

1)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

임용우(1984)의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Olson의 가족체계모형에 근거한 가족체계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귀연(1994)의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균형가족의 청소년들이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보인 반면,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이 모두 낮은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은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균형가족에 비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정도를 보였다. 한편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근접성이 높으며, 또한 가족이 상황적이거나 발달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해 나갈수록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을 적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의 여러 속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원사이에 심리적으로 유대가 적고 가족구성원들이 각기 따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변화에 적응적이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전귀연, 최보가(1995)의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가족적응성 수준에서 경직된 가족의 청소년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느꼈으며 매우 융통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향(1992)의 연구에서, 응집력, 적응력 및 의사

소통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가족의 응집력은 청소년들의 정신장애의 전체 심도지수와 신체화,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정신증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력은 우울 차원과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 수록 그들의 정신건강은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일반적으로 가족응집력, 적응력이 낮을 수록, 그리고 가족체계유형별로는 균형가족, 약간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순서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이 높아 가족이 기능적으로 체계를 유지할 때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향을 보였다.

2) 자아분화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

Bowen은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은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자아분화가 성취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전춘애, 1994).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조사한 결과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연구고찰에 한계가 있었다.

자아분화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자아분화수준이 낮을 수록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자아분화는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3

개 대학교를 선정하여 남녀 대학생 1학년에서 4학년 까지 남학생 248명, 여학생 241명으로 총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 심리적 안녕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가족체계유형을 조사하는 도구로서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척도 III를 전귀연(1993)이 변안한 것을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응집력 10개 항목, 적응력 10개 항목으로 모두 20항목의 5점 척도로 각각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FACES III에 의한 집단분류는 우선 연구대상자들이 나타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가족응집력 수준별 집단과 가족적응력 수준별 집단을 분류한다. 그 다음 가족체계유형 구분은 가족응집력 수준과 가족적응력 수준을 합한 것을 2로 나누어 얻은 점수로 집단을 분류한다.

본 연구자가 응집력 요인 및 적응력 요인과 전체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예비조사에서는 각각 .82, .77, .87 이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각각 .83, .81, .8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2)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Bowen의 이론에 입각하여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36개로 인지적 기능대 정서적 기능을 측정하는 문항 7개, 자아통합을 측정하는 문항 6개, 가족 투사과정을 측정하는 문항 6

개, 정서적 단절을 측정하는 문항 6개, 가족퇴행을 측정하는 문항 11개로 되어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방식으로 평가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아주 그렇다' 4점을 부과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인 것은 점수 분포를 반대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한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8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3) 심리적 안녕척도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을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의 두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긍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하여 Tiedje, Wortman, Downey, Emmons, Bienat와 Lang(1990)이 개발한 안녕(Well-being)척도를 변안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이희정(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한달동안 응답자의 정서가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모두 9문항으로 6점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9점에서 54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는 .89 이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9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Tiedje등(199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한달 동안 응답자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관하여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7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한 단일문항도구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적절한 측정항목을 하기 위해 1996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남녀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6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남녀대학생

총 52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자료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총 489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및 백분율,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 후기 자녀의 자아분화 그리고 자아분화에 따른 심리적 안녕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후검증으로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 후기 자녀의 자아분화

단가족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아분화가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중간범위가족과 자아분화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극단가족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라 자아분화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부터 낮은 가족순으로 자아분화가 높고,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중간범위가족과 극단가족, 균형가족과 극단가족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신영규(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이 모두 높은 균형가족의 청소년이 자아분화가 높게 나타나,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간다는 Bowen(1982)의 이론과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가족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성원들 상호간에 근접성이 높으며, 가족이 상황적이거나 발달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해 나갈수록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을 적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의 여러 속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전귀연(1994)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영규(1994)

〈표 1〉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집단구분	N(%)	M	SD	Duncan Grouping	F값 및 유의도
균형가족	48(9.8)	106.27	10.73	A	30.58***
약간 균형적인 가족	148(30.3)	105.23	9.18	A	
중간범위가족	216(44.2)	100.27	8.87	B	
극단가족	77(15.7)	93.99	9.32	C	

*** P < .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집단간의 자아분화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58, P<.001).

사후검증을 한 결과, 균형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집단간에는 자아분화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들 두 가족집단은 나머지 중간범위가족, 극

의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높은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낸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후기자녀의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중간

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국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아직 한국가족의 경우는 외국과는 달리 가족내에서 서로 상호작용가능성이 높고 서로간에 결속되어 있을 때, 자녀들이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적응을 보다 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후기자녀의 자아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해 주었다.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가족의 응집력이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적응력이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가족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가족원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실제로 만일 청소년후기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개발시킬 시기라면 민주적인 통제 및 훈육방식이 가장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후기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가족체계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지각할 때, 가족들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나아가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에서

〈표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긍정적 정서의 차이

집단구분	N(%)	M	SD	Duncan Grouping	F값 및 유의도
균형가족	48(9.8)	34.85	6.66	A	13.74***
약간 균형적인 가족	148(30.3)	32.80	7.04	A	
중간범위가족	216(44.2)	30.19	7.02	B	
극단가족	77(15.7)	27.78	8.17	C	

*** $P < .001$

〈표 2〉에 의하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집단간의 긍정적 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3.74$, $P < .001$).

사후검증을 한 결과,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집단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들 두 가족집단은 나머지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중간범위가족과 긍정적 정서가 가장 낮게 나타난 극단가족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 이국형(1992)의 연구결과에서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집단에서 강박증, 우울, 불안이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 수록 그들의 정신건강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집단간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47$, $P < .001$).

사후검증을 한 결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균형가족, 약간균형적인 가족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활만족도 수준이 일치하지 않게 나타난 약간 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 가족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균형가족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난 극단가족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약간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 가족집단과 극단가족집단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가족응집성이 높을 수록 가족만족도도 높다는 Smith(1985)의 연구결과와 김명자(1992)

〈표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집단구분	N(%)	M	SD	Duncan Grouping	F값 및 유의도
균형가족	48(9.8)	4.92	0.87	A	7.47***
약간균형적인가족	148(30.3)	4.82	1.13	A B	
중간범위가족	216(44.2)	4.53	1.25	B	
극단가족	77(15.7)	4.10	1.32	C	

*** P < .001

의 남편과 부인 모두 가족응집성이 높은 밀착가족에서 가장 높은 복지감을 나타낸 연구와 박경숙(1993)의 응집성이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3. 자아분화에 따른 심리적 안녕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상집단은 중집단, 하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아분화 중집단과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Bowen(1982)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가며, 자아분화수준이 낮으면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을 못하며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표 4〉 자아분화에 따른 긍정적 정서의 차이

집단구분	N(%)	M	SD	Duncan Grouping	F값 및 유의도
上 집단	172(26.2)	34.17	6.27	A	30.88***
中 집단	189(38.6)	30.39	6.54	B	
下 집단	128(35.2)	27.86	8.58	C	

*** P < .001

〈표 4〉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집단간의 긍정적 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88, P<.001).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상집단은 중집단, 하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아분화 중집단과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집단간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5.25, P<.001).

애착을 보이고,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 불안해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수록 심리적 안녕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 중 균형가족, 약간균형적인 가족, 자아분화,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 등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

〈표 5〉 자아분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집단구분	N(%)	M	SD	Duncan Grouping	F값 및 유의도
上집단	172(26.2)	4.92	0.90	A	15.25***
中집단	189(38.6)	4.57	1.14	B	
下집단	128(35.2)	4.16	1.53	C	

*** P < .001

〈표 6〉 긍정적 정서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 긍정적 정서	
	b	β 및 유의도
성 별	0.10	0.01
균형가족	3.75	0.15**
약간균형적인 가족	2.24	0.14*
중간범위 가족	0.73	0.05
자아분화	0.22	0.30***
모의 취업유무	0.74	0.05
경제수준	1.90	0.09*
회귀상수	3.00	
R ²	0.16	
Adj R ²	0.15	
F	12.02***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체계유형에서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집단이 중간범위의 가족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의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자아분화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이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약 16%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모의 취업유무는 긍정적 정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때 청소년 후기 자녀의 경우,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균형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일때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독립적인 자아분화가 잘 형성될수록 자신의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균형가족에서 청소년들이 불안, 우울을 적게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의 여러 속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전귀연(1994)의 연구결과와 이국향(1992)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그들의 정신건강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가족체계유형 변인보다는 자아분화변인이 청소년 후기 자녀의 긍정적 정서에 더 기여도가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후기 자녀들이 발달단계상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더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므로, 자아분화수준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체계유형 중 약간 균형적인 가족과 자아분화가 유의한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집력과 적응력이 약간 높은 약간균형적인 범위의 가족집단이 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독립적인 사람일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별, 균형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모의 취업유무, 가정의 경제수준 등은 생활만족도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독립변인들이 청소년 후기 자녀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9%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인은 자아분화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나간다는

〈표 7〉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 생활만족도	
	b	β 및 유의도
성 별	0.07	0.03
균형가족	0.44	0.11
약간균형적인 가족	0.35	0.13*
중간범위 가족	0.20	0.08
자아분화	0.03	0.22***
모의 취업유무	0.07	0.03
경제수준	0.23	0.06
회귀상수	1.09	
R ²	0.09	
Adj R ²	0.08	
F	6.72***	

* P < .05 ** P < .01 *** P < .001

Bowen(198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가족체계유형 중 약간균형적인 가족집단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귀연(1994), 이국향(1992)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긍정적 정서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족체계유형보다 자아분화 변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후기 자녀의 생활의 질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은 인구학적인 변인이나, 가족체계 변인보다는 자신의 자아분화 정도가 더 중요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가족체계유형 중 균형가족보다 약간 균형적인 가족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적응력이나 응집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 후기 자녀의 경우는 적응력과 응집력이 약간 높은 수준인 경우 자신의 자율성이 발휘될 기회가 있어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의 회귀분석에서 설명력이 낮은 수준이므로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Olson등이 가족체계유형 분류를 위해 개발한 Circumplex모델과 Bowen의 이론에 입각하여 가족체계 유형별로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가족체계유형별 자아분화수준을 밝히며,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은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균형가족에서 심리적 안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청소년 후기 자녀의 자아분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균형가족에서 자아분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가족과 약간균형적인 가족집단간에는 자아분화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들 두 가족집단은 나머지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자아분화에 따른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은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아분화 上집단, 中집단, 자아분화 下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심리적 안녕을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의 두 가지 차원에서 볼때, 긍정적 정서는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균형가족과 약간 균형적인 가족집단에서, 그리고 자아분화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만족도는 약간 균형적인 가족집단에서, 그리고 자아분화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는 가족체계유형변인보다 자아분화변인이 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 수준은 균형가족, 약간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균형가족이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체계유형으로 밝혀졌다.

둘째,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수준은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균형가족집단에서 청소년 후기 자녀의 자아분화가 가장 잘 이루어짐이 입증되었다.

셋째,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의 경우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분화수준이 높을 수록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심리적 안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분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후기 자녀들이 발달단계상 자신의 정체감형성에 더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므로 자아분화수준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의, 다양한 가족의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행하여 우리문화에 맞는 척도개발 및 기준설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둘째, 청소년기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이시기임을 고려하여 양적인 연구뿐만아니라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에는 가족체계와 자아분화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하여 적응력과 응집력을 높이고 자아분화를 돕는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논문집(숙명여자대학교), 33, 31-56.
- 2)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 ".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3) 신영규(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유영주(1986). 신가족 관계학. 서울: 교문사.
- 5) 이국향(199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이 춘재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7) 이회정(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8)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석사학위 청구논문.
- 9)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0) 전귀연·최보가(1995).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 11)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2)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3) Blos, P. (1962). On adolesc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14)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M. Jr.(Eds.),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 Press.
- 15)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London.
 - 16) Bryant, F. B., & Verloff, J.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17)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18) Garbarine, J., Sebes, J., & Schellenbach, C. (1987).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pression i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55, 19-28.
 - 19) Lavee, Y., McCubbin, H. L., & Patterson, J. M. (1985).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An empirical test b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 811-825.
 - 20) Lavee, Y., & Olson, D. H.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 21)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22)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23) Olson, D. H. (1985). Commentary: Struggling with congruence across theoretical models and method. *Family Process*, 24, 203- 207.
 - 24)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N.
 - 25) Olson, D. H. (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roma(Ed.). *Normal Family Processes*(pp. 104-136). NY/London: The Guilford Press.
 - 26) Ross, C. E., Mirowsky, J., & Goldsteen, K. (1990).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ealth: The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59-1078.
 - 27) Smith, D. E. (1985).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o Family Stress Pile-up. Ph. D., Michigan University, 109-119.
 - 28) Tiedje, L. B.,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nat, M., Lang, E. (1990). Woman with multiple roles: Role - 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3-72.